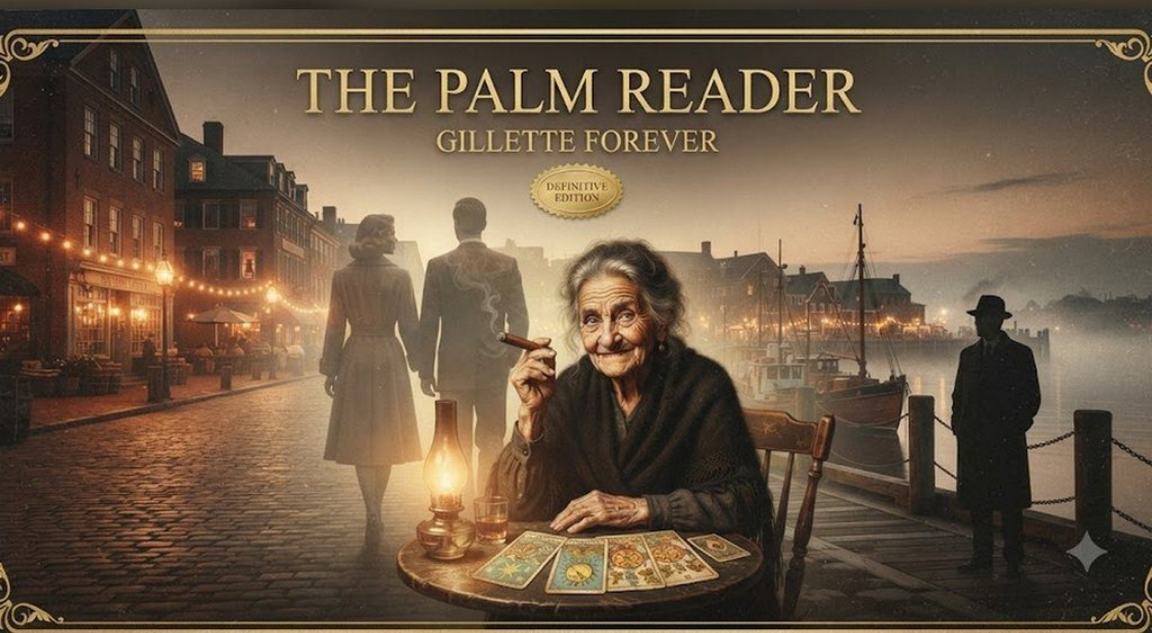


THE PALM READER

GILLETTE FOREVER

DEFINITIVE
EDITION



WALL STREET의 손금 보는 사람 — 속편 II

GILLETTE FROM WALL STREET · 11

...

나는 마이애미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 두었다.

여섯 달.

쉬고, 스페인어를 다듬고, 쿠바 여자들을 가까이서 연구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들은 언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었다.

나는 슈퍼마켓에 들어갔고, 운명이 카트보다 먼저 와 있었다.

한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쿠바 여자.

나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도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나를 뵈히 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당신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장 보는 중.”

“아니. 이 세상에서 말이야. 지금쯤 지옥에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녀의 영어를 칭찬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최고의 여자들은 언제나 동시에 두 사람이 되는 법을 안다:

정보를 원할 때는 다정하고,
그것을 손에 넣으면 무자비하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건강은 어떤지.

도대체 어떻게 아직 살아 있는지.

아내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젊음을 지키고 악마까지 이긴 거야?”

나는 버스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부분은 사실이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곧바로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집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아는 사람이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도.

그러다 퍼뜩 깨달았다.

그였다.

Cincinnati의 인도 사람.

서명된 달러 지폐의 그 사람.

그는 맨 위 계단에 이르렀다.

나를 껴안았다.

어떤 인도 사람들은 영국인보다 더 잘 걸치는 그 영국식 침착함으로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Frega, 미안한데 — 화장실이 어디죠?”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화장실 문을 찾으러 갔다.

그러다 내가 아직 꿈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돌아섰다.

빨간 안락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또 그였다.

보스톤의 유명.

웃고 있었다.

“당신이 겁먹지 않을 줄 알았어. 불알 달린 남자니까.”

그러고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켰다.

“내가 누굴 데려왔는지 봐.”

키 큰 여자.

우아했다.

미국인.

마흔 살쯤.

임원의 자세.

남의 삶을 끝내는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눈빛.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저작권청. 워싱턴 D.C.”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승진이군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읽었죠.”

“그래서요?”

“심장이 견디지 못했어요.”

유령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웃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러지 마요."

"아니, 정말로요."

"아니, 정말로 — 나도요."

그녀는 앉았다.

방을 살폈다.

나를 살폈다.

그러고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평생 기다려 온 남자예요."

"누굴 만나기엔 꽤 복잡한 방법 같군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아니요. 내 말 믿어요. 최선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때 나는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을 했다.

"저작권청 전에는 — 어디서 일했어요?"

"미국 다국적 기업이요. 세제."

"어땠어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죽어야 해요."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요. 터질 때까지 부려 먹어요."

나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자기."

“뭐가요?”

“차원을 잘못 골랐어요.”

“네?”

“인생에서는 언제나 — 오로지 — 스타일의 문제예요.”

나는 창문을 가리켰다.

지구는 아직 저 밖에 있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문제투성이인 채로.

“나는 모두의 말을 들어요.”

“유령들의 말도요?”

“특히 그들의 말을.”

“그럼 왜 우리랑 같이 가지 않아요?”

“여기 아래에서 아직 끝낼 일이 있으니까.”

보스턴의 유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원은 눈을 내리깔았다.

실망한 얼굴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말이에요 —”

“뭔데요?”

“마침 나도 세제 일을 해요.”

“그래서요?”

“하지만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누가 죽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유령은 배를 잡고 웃어 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 처음으로.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혼자였다.

방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유령도 없었다.

임원도 없었다.

화장실을 찾는 인도 사람도 없었다.

빨간 안락의자뿐이었다.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누가 올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Ferdinando